

정부, 5·18 소송 소멸시효 '이중 잣대'...강제동원 소송 참고했나

윤상원 열사 유족 등 '정신적 손해' 소멸시효 기산점 항소...유공자·유족 달리 적용 "보상금 지급받은 날부터 계산 시효 끝나"...법조계 "헌재 결정 나온 2021년부터"

5·18 유공자와 유가족들이 정부를 상대로 한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하는 가운데 최근 정부가 소멸시효를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부가 5·18 유공자와 일부 유가족에게 소멸시효 기산점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어 '이중 잣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8일 정부가 5·18당시 시민군 대변인으로 옛 전남도정을 지키다 계엄군 총탄에 맞아 숨진 윤상원 열사(1950-1980)의 유가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전두환 등 신군부 세력이 헌법 질서 파괴 범죄를 자행하는 과정에서 불법 행위로 인해 고인과 가족들의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이고 가족들은 사회생활과 경제활동에도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윤 열사의 가족들이 청구한 금액의 36.8%~39%를 인정해 어머니에게 3억2000만원, 다른 가족에게 2333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정부는 지난 28일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하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항소 이유로 그동안의 것과 다른 소멸시효를 들었다.

최근 5·18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에서 5·18 유공

자와 그 유가족에 대해 정신적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잇따르면서 정부도 항소를 이어왔다.

그동안 정부는 5·18 유공자와 그 유가족을 가리지 않고 항소하면서 손해배상금을 이유로 들었다. 손해배상금이 과하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최근 윤상원 열사 유족을 비롯해 일부 유가족들의 1심 결과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을 언제부터 봐야 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의 손해나 가

해지를 안 날로부터 3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소멸된다.

문제는 5·18 피해 당사자인 유공자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완성을 항변의 이유로 들지 않고 부모·배우자·형제 자매들에게만 소멸시효가 완성돼 채권이 소멸했다고 봤다는 점이다.

유가족들에 대해서는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5·18 보상법에 따른 보상금 심의위원회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계산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법조계에서는 유가족들에 대해서도 소멸시효 기산점을 과거 5·18보상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았을 때가 아닌 헌재판결의 결정이 나온 2021년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지배적인 시각이다.

5·18 보상금은 '신체적 손해'만 해당할 뿐 '정신적 손해'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헌재판결의 결정

이 나온 시점에서야 유가족들도 정신적 손해배상을 '안 날'로 봐야 한다는 점에서다.

따라서 정부가 지금까지와 달리 소멸시효 기산점을 항소의 이유로 갑자기 꺼내 든 배경에 관심이 모인다.

이와 관련 법조계에선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에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한 사례를 참고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이어진 판결에서 피해자들은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확정판결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일본 기업 측은 2012년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기준 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맞섰다. 결국 재판부는 일본 기업 쪽의 손을 들어줬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무농약 딸기 맛보세요
8일 광주시 북구 건국동의 농장에서 농부들이 북구 특산품인 '지산딸기'를 수확하고 있다. 지산딸기는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클로렐라 농법으로 재배한 것이 특징이다. /나명주기자mjna@

5·18 구술 기록 영문 번역서 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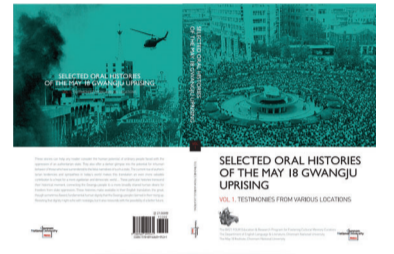
전남대 BK연구원

5·18민주화운동의 구술 기록을 영문으로 번역한 책이 출간됐다.

전남대학교는 대학 산하 연구단인 영문과 'BK 21 영어권 문화기여 큐레이터 양성 교육연구단'이 최근 '5·18광주항쟁의 구술 기록(Selected Oral Histories of the May 18 Gwangju Uprising·사진)' 제1권을 출판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책은 지난 1990년 발행된 5·18 구술 증언록 '광주오월민주항쟁사료전집'을 영문으로 옮긴 것이다.

번역 작업은 연구단의 사회문제해결 프로젝트로 추진돼 영문학과 교수진과 강사, 대학원생 등 36명의 협업으로 지난 2년 동안 진행됐다.



책은 '트랙우마', '살인적인 집안', '비판적 의식', '격렬한 항전', '죽은 자들과 함께' 등 5개 장으로 구성됐으며 총 26명의 증언을 담았다. 5·18을 시간의 흐름이 아닌 주요 항쟁 장소를 중심으로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연구단은 2년마다 번역서를 출간할 계획으로, 오는 2025년 항쟁의 주체를 중심으로 쓴 제2권을, 2027년에는 항쟁의 지향점을 중심으로 쓴 제3권을 펴낼 예정이다.

/유연재 기자 yjyou@

두꺼비, 따뜻한 겨울이 반갑지 않아요

지난해보다 3주 빠른 2월 10일 산란 시작...수온 높아 암컷 수도 줄어 개체수 58% 급감

전남 지역 겨울철 평균 기온이 상승하면서 두꺼비 산란 시기가 앞당겨지고 성비 균형이 무너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남녹색연합은 2015년 3월부터 섬진강 일대를 중심으로 51개의 소류지와 논습지를 찾아 조사한 '전남지역 두꺼비 산란 이동 및 로드킬 현황'을 8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올해 두꺼비가 산란을 시작한 시점은 2월 10일로 지난해 3월 1일에 비해 3주 가량 앞당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또 성비 역시 암컷(50마리)이 수컷(490마리)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단체는 이 같은 현상을 두고 "겨울철 온도가

높아져 두꺼비들이 일찍부터 봄이 왔다고 착각해 동면에서 깨어난 것 같다"며 "그 탓에 두꺼비 산란시기가 당겨졌고, 수온이 높으면 수컷이 많게 나타나는 양서류의 특징에 따라 암컷의 수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또 성비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암컷이 희귀해진 탓에 짝짓기를 위해 암컷 한마리당 수컷이 네 마리에서 열 마리까지 올라 타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암컷 두꺼비가 질식, 근육파열 등으로 죽는 경우도 많아졌다고 단체는 분석했다.

단체가 올해 섬진강 일대 우수로(빗물을 흘려 내리기 위해 만든 통로)에서 포획한 두꺼비 수는 540마리로, 지난해 1291마리에 비해 58.1%

급감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단체는 인간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곤충을 사냥하며 '생태계 중간자' 역할을 하고 있는 두꺼비 개체수 감소가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전남녹색연합 관계자는 "자신이 태어난 곳에 산란하는 특징이 있는 두꺼비들이 재개발 등으로 인해 서식지를 잃으면서 개체수가 자연스레 줄어들고 있다"며 "온도 상승 외에도 로드킬 등으로 동면에서 깨어난 두꺼비들이 죽지 않도록 지자체와 시민들, 학계, 시민단체 등의 적극적인 소통과 참여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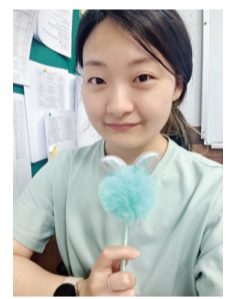
'프리 다이빙 뇌사' 30대, 5명에 새 삶 선물

광주 실내수영장에서 '프리 다이빙' 강습을 받다가 불의의 사고로 뇌사 판정을 받은 30대 영어강사(광주일보 1월 2일자 6면)가 장기기증으로 5명에게 새 생명을 선물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전남대병원 측은 지난해 12월 22일 노연지(33·사진)씨가 장기기증을 통해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 병원 등에 입원 중인 5명의 환자들에게 간장, 신장, 췌장 등을 이식했다고 8일 밝혔다.

노씨는 생전 계획적이고 꼼꼼한 성격으로 아이들과 동물을 좋아했으며, 나눔에도 관심이 많아 사고가 나기 수년 전부터 장기기증 서약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노씨 어머니는 "딸의 장기기증을 결정한 후 기증 받는 분 중 1명이 1~2세 가량의 아이라고 들었는데 앞으로 건강하게 잘 자라줬으면 한다"며 "비록 내 딸은 하늘나라로 갔지만 딸의 일부가 이 세상에 살아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만큼 저와 비슷한 처지를 갖고 있는 분들도 좋은 결정 해주셨으면 좋겠



다"고 말했다.

노씨는 지난해 12월 10일 광주시 서구 풍암동의 한 실내수영장 내 5m 깊이 다이빙풀에서 프리다이빙 강습을 받던 중 심장지 상태로 발견됐다. 노씨는 뇌사 판정을 받고 투병을 이어오다 같은 달 21일 끝내 숨졌다.

당시 경찰 조사 결과 풀장 인근에 안전요원이 배치되지 않았던 사실이 확인됐고, 다이빙풀은 다른 수영장과 달리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기준이 없어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이병훈(광주 동남) 국회의원은 지난 7일 잠수풀장 등 수중레저사업장 내에 안전관리요원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유연재 기자 yjyou@

절찬 판매중

이방인

이 기원 소하

문이당

영광의 사나이!

이방인

이기원이 쓴

대한민국엔 0.1%의 이방인들이 살고 있다.
금수저로 불리는 불량 재벌과 무소불위의 권력을 쥔 국회의원 등의 고위 공직자들이다.

서민들의 삶의 애환을 보듬고 재벌과 권력자들을 질타한 작품!!

서점 판매 | 영풍문고 총장서림 초원문고
인터넷 판매 | 교보문고 영풍문고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배송료 무료)